산업브리프

키움증권

2023. 05. 24

Overweight
(Maintain)

은행 Analyst 김은갑
egab@kiwoom.com

RA 김재철
kjc0724@kiwoom.com

은행

가계대출 감소폭 확대에 대한 다른 시각

2022년 사상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데 이어 2023년 1분기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자이익 측면에서는 실적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미 낮아진 대출증가율이 소폭 바뀌는 정도로 추가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에 반응하여 대출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차주가 많다는 점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23년 1분기 가계대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23년 1분기 판매신용 제외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0.3조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2.1조원 감소했고, 은행 외 가계대출은 공적금융기관과 증권사 등 금융중개회사에서 증가했다. '22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전체 가계대출이 7.3조원 감소, 은행권 가계대출이 7.5조원 감소한 데 이어 감소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22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상승, 부동산 거래부진 등 대출수요 감소가 일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고, '23년 1분기에는 이에 더해 상여금 유입에 따른 대출상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주택담보외 기타 가계대출이 전분기 6.9조원 감소에서 '23년 1분기 10조원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적금융기관으로 양도된 영향이 컸는데, 1분기 약 7.2조원이 양도되었다. 양도 규모가 감소하면 2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증가율은 YoY -0.7%이며, 기업대출 증가로 이를 만회하여 총대출증가율은 3.8% 정도이다. '22년 4.8%에서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대출증가율의 변화폭이 작아 이자이익 증감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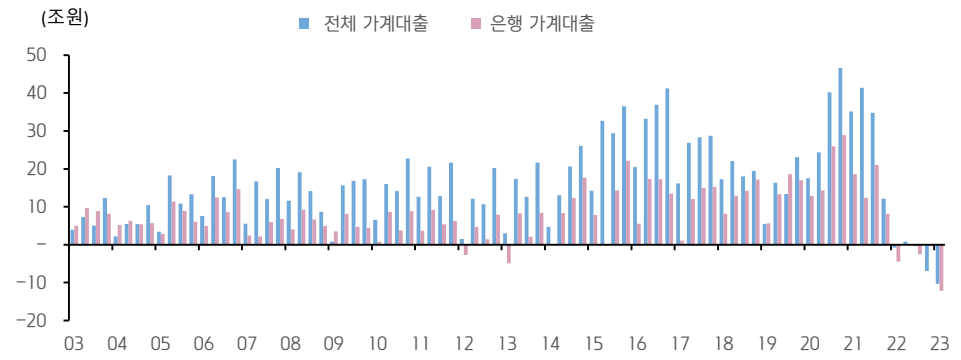
>>>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이 상환되는 현상은 전례 없는 일이며, 기타대출 감소분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넘어 전체 가계대출이 연단위로 감소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기타가계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비은행권 기타대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국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상환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증가한 이자부담을 감내하는 차주도 물론 많겠지만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차주들의 비중이 전례 없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크게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상환되는 과정이라면 당시의 증가폭만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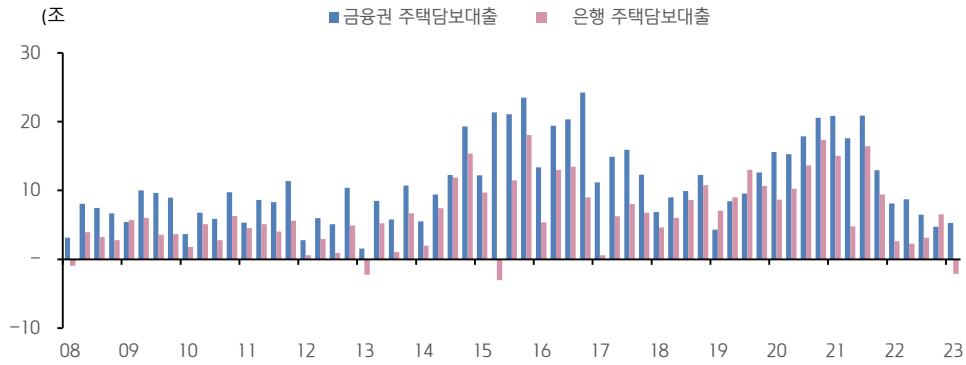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분기별 가계대출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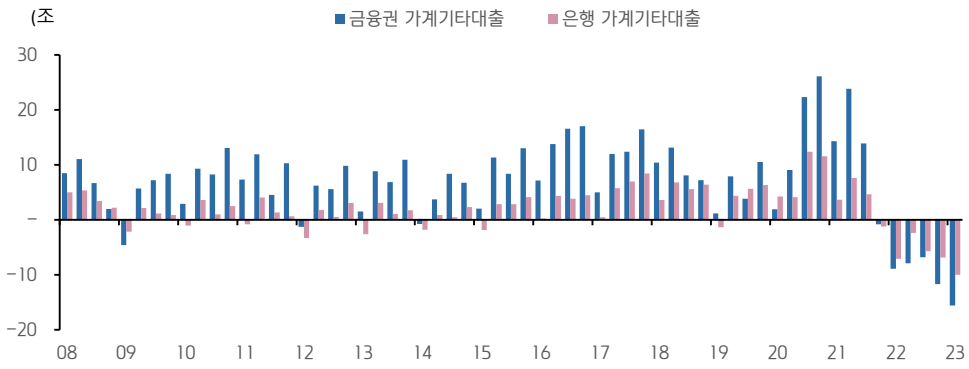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분기별 주택담보대출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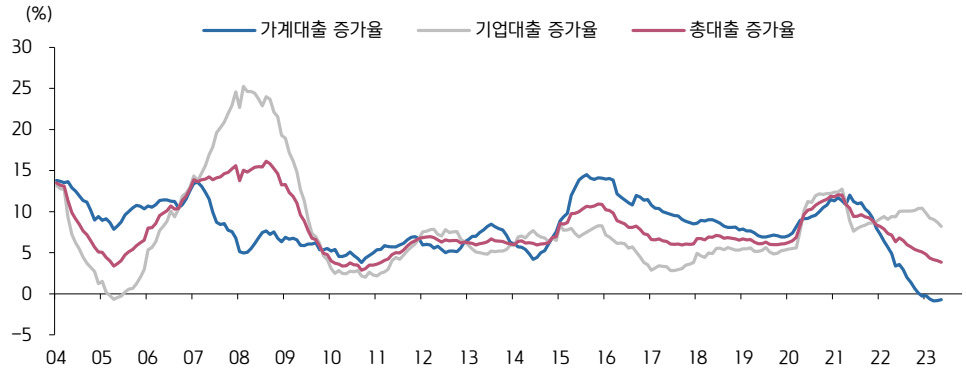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분기별 가계 기타대출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은행 대출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2/04/01~2023/03/31)

매수	중립	매도
95.43%	4.57%	0.00%